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0년 7월 조사 -

2020년 8월 5일
주식회사데이터코쿠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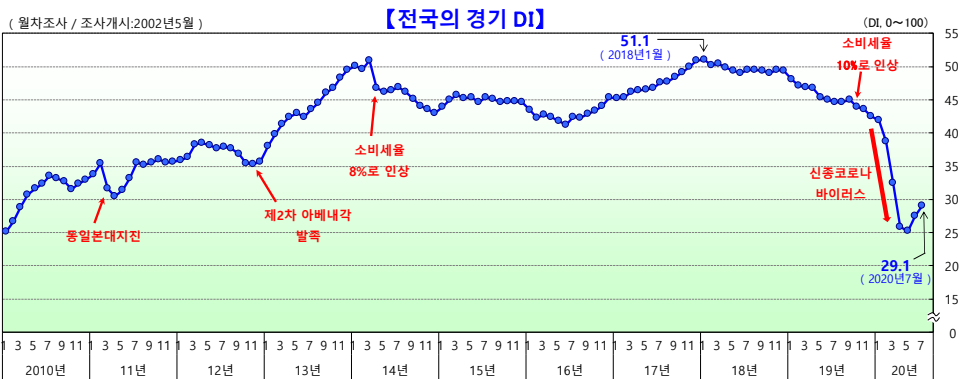
일부에서 회복의 움직임도, 어려운 경제상태가 계속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정체가 최대의 하방 리스크 ~

(조사대상 2만 3,680사, 유효회답 1만 1,732사, 회답율 49.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20년 7월의 경기 DI는 2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1.5 포인트)인 29.1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일부에서 회복의 움직임도 나타났으나 어려운 수준의 추이가 계속되었다. 앞으로의 경기는 경제활동의 재정체가 최대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가운데, 저수준으로의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제조』 및 『건설』 등 9개 업계에서 플러스가 나타났다. 체감경기 악화에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모든 업계에서 40을 하회하는 등 저수준의 추이가 이어졌다. 『금융』은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2개월 연속 전 10개 지역이 회복되었다. 지역간 인적 이동이 늘어난 한편 재택 내 소비의 확대에 판매증가나 제조업의 생산재개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7월 호우의 영향도 나타났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은 2개월 연속 회복되었다.



< 2020년 7월의 동향 : 후퇴국면 >

2020년 7월의 경기 DI는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1.5포인트)인 2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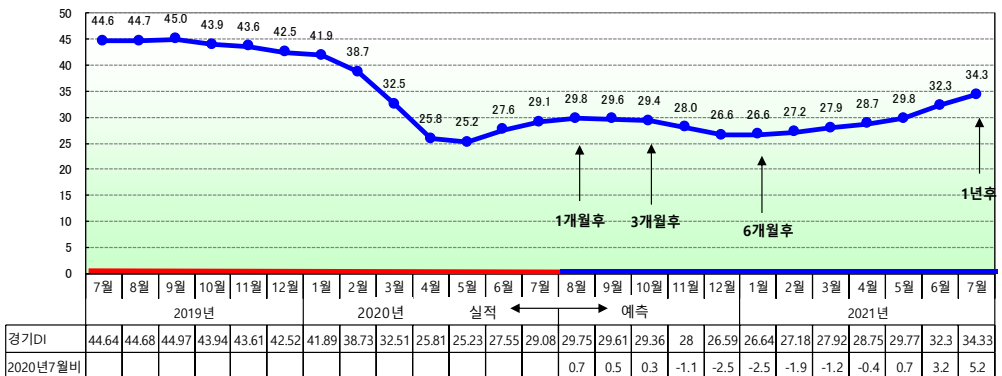
7월의 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의 재개 등이 기여하여 저수준이지만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택 내 소비의 확산으로 가정식 수요가 높아진 한편 재택근무로 인한 IT 관련수요 및 새로운 주택 니즈 등도 나타났다. 또한 정부·자치체에 의한 각종 지원책 실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한편 해외경제의 정체로 인한 수출입의 감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7월 호우가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끼쳤다.

국내경기는 일부에서 회복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어려운 수준의 추이가 계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멈춤 >

향후의 국내경기는 근로방식 및 일상생활에 있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대응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액급부금 및 관광진흥책 등의 정책효과로 외식 및 레저관련 등의 개인소비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 만회 생산 및 공장의 국내회귀 등은 설비투자를 상향시키는 한편, 억제되었던 수요의 표면화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다시 정체하는 것은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게다가 기업업적의 악화로 인한 고용조정 및 임금인하, 설비투자계획의 하방 수정, 미중(美中)관계를 포함한 해외동향 등도 우려된다.

향후의 경기는 경제활동의 재정체가 최대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가운데, 저수준으로의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